

“어우우? 천만에!”…KB스타즈 매직넘버2

〈여차피 우승은 우리은행〉

4경기서 2승뎌 13년만에 리그 우승
우리銀 상대 5승2패…챔프전도 기대
안덕수 감독 “긴장의 끈 놓지 않겠다”



KB스타즈가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뒀다.

청주 KB스타즈는 지난 23일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종 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홈팀 아산 우리은행에 74-59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25승6패가 된 1위 KB스타즈는 2위 우리은행(23승8패)과의 격차를 2경기로 벌렸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4경기



안덕수 감독

를 남겨둔 KB스타즈는 2경기만 승리하면 자력으로 2006년 여름리그 이후 13년만의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는다. KB스타즈는 단일리그가 된 2007~2008시즌 이후에는 단 한 차례

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상대 팀과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2승을 가져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KB스타즈에게 이번 우리은행전 승리는 정규리그 우승에 가까워지는 기록적인 요소 이외에도 큰 의미가 있다. 바로 자신감이다.

올 시즌 7차례 맞대결에서 KB스타즈는 우리은행에게 5승2패로 우위를 점했다.

1,2라운드에는 내리 패배했지만, 3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는 내리 승리를 가져갔다. 특히 정규리그 우승의 향방이 걸린 7라운드 맞대결에서 15점차의 완승을 거뒀다는 점은 선수들로 하여금 ‘우리은행을 상대로 언제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경우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정규리그 우승팀은 챔피언결정전(5전3승제)에 직행한다. 2~3위 팀 간 플레이오프(3전2승제) 승자를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여자프로농구가 단일리그로 변경된 이후 12시즌 모두 정규리그 우승팀이 챔피언결정전 우승까지 독식했다.

KB스타즈의 안덕수 감독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남은 일정이 중요하다. 큰

경기를 이긴 상황에서 그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코칭스태프도 선수들도 잘 알고 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우승이 결정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최하위 신한은행은 24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87-75로 승리를 거두고 7연패에서 벗어났다. 합계 시즌 5승(26패)째를 수확한 신한은행은 단일시즌 역대 최소 승리(2017~2018시즌 KDB생명 4승31패)의 악령에서 벗어났다. 신한은행은 김연희(18점), 한엄지(15점·6리바운드), 자신타 먼로(21점·8리바운드), 양지영(11점·5어시스트), 박주영(10점·4리바운드) 등이 고르게 두 자리 수 득점을 올리면서 에이스 김단비가 빠진 상황에서도 승리를 챙겼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FC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위)가 24일(한국시간) 세비야 원정에서 2번째 골을 넣은 뒤 동료 우스망 댈멜레를 끌어안고 환호하고 있다. 메시는 개인 통산 50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4-2 역전승을 이끌었다. 세비야(스페인) | AP뉴시스

메시 해트트릭…바르샤, 세비야 제압

평생 단 한번 경험하기 힘든 해트트릭을 리오넬 메시(32·바르셀로나)가 무려 50번이나 기록했다. 메시는 24일(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의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세비야와 2018~2019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5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3골·1도움을 기록했다.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바르셀로나는 4-2로 이겼다. 0-1로 뒤진 전반 26분 왼발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린 메시는 1-2로 뒤진 후반 22분 오른발 슛으로 2번째 골을 넣었다. 후반 40분에는 동료 카를레스 알레나의 슈팅이 수비수 맞고 굴절되자 이 볼을 잡아 상대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칩 슛으로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손흥민 침묵…토트넘, 번리에 충격패



손흥민

손흥민(토트넘)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번리 터프머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번리와 원정에서 선발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토트넘은 1-2로 패했다. 최근 4경기 연속 골로 질주하던 손흥민과 부상에서 돌아온 해리 케인이 다시 뭉쳤지만, 시너지 효과는 크게 발휘되지 못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냐는 질문에 의문이 따른다. 일단 번리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페널티킥 얻은 이재성, 보훈전 맹활약

이재성의 홈스타인 길은 23일(한국시간) 보훈의 루르 슈타디온에서 열린 2018~2019 분데스리가2(2부 리그) 2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이청용이 활약한 보훈에 3-1로 승리했다. 이재성과 이청용이 나란히 선발로 출전해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둘이 같은 그라운드에서 활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이청용이 결장해 ‘코리안 더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둘은 나란히 공격 2선에 포진했다. 이재성은 팀이 1-0으로 앞선 전반 32분 추가골이 되는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공격 포인트는 없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로드FC “역대급 승부…052 대회만 같아라”

라이트급 바르나위, 권아술과 100만달러 매치
밴텀급·무제한급 등도 화려한 볼거리 선사



로드FC가 새로운 메인스폰서 ‘굽네몰’과 함께

제대로 날아올랐다. 소위 ‘역대급’이라 불릴만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다가오는 5월 제주도 대회를 더욱 더 기대케 했다.

로드FC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굽네몰 로드FC 052’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2년 넘게 진행해 온 100만 달러 토너먼트의 최종 도전자가 가려졌고, 그 동안 공석이던 밴텀급 타이틀의 주인공도 결정됐다.

메인이벤트에 앞서 열린 경기에서도 각종 명장면이 쏟아졌다. 시원한 타격에 의한 TKO 승부가 자주 연출되자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격투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성과 박수를 보내기 바빴다.

이번 넘버링 대회는 로드FC에게 새 출발과도 같았다. 새로운 대회 메인스폰서 ‘굽네몰’과 함께하는 첫 대회. 알찬 구성으로 대회를 준비한 만큼 흥행에서도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했다.

로드FC는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토너먼트 결승전을 메인이벤트로 내세우며 흥행몰이에 나섰다. 만수르 바르나위(27·튀니지)와 샤밀 자브로프(35·러시아)의 결승전은 충분히 그 이름을 알렸다. 바르나위가 강력한 플라잉 니키크로 KO 판정을 얻어내면서 권아술과의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로 향하는 최종판문을 통과했다.

-80kg 계약체중 매치로 붙은 김승연(30)과 기노주(34)의 경기에서는 로드FC 최단시간 KO 타이 기록이 나왔다. 김승연이 1라운드 7초 만에 강력한 오른손 스트레이트에 이은 파운딩으로 기노주를 KO 시키며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무제한급으로 대회 첫 경기를 맡은 미



권아술(왼쪽)은 5월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만수르 바르나위와 100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 경기의 VVIP 티켓은 이미 매진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새 메인스폰서 ‘굽네몰’과 함께한 23일 ‘로드FC 052’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 향후 행보에도 더 큰 관심이 모아진다. 스포츠동아DB

첼 페레이라(26·브라질)는 김대성(34)을 상대로 백 팀블링 공격을 시도하는 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승부까지 니키크에 의한 TKO로 내려 완벽한 경기 운영미를 보였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는 권아술이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케이지에 등장했다. 도전자 바르나위에게 꽃다발을 전해 주며 5월 100만 달러 매치의 흥행을 예고했다. 두 파이터의 대결은 5월 제주도 한라

체육관에서 열린다. VVIP 티켓은 이미 매진된 상황. 이번 052 대회의 흥행으로 남은 티켓 판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더할 나위 없는 로드FC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황의조 J리그 개막전서 부상…벤투호 화들짝

대표팀 핵…발등부상 정도 예의주시

축구국가대표팀 주축 스트라이커 황의조(27·감바 오사카)가 2019시즌 일본 J리그 개막전에서 발을 다쳤다.

황의조는 23일 오사카에서 열린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정규리그 홈 개막전(2-3 패)에 선발 출격, 첫 골에 기여했다. 전반 15분 히슬이 올린 지 약 40여 초 만에 상대 수비수의 발을 가로채 날카로운 왼발 슛을 시도했다. 골대를 맞고 흐른 볼을 그의 동료가 밀어 넣었다.



황의조

이후에도 황의조는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그라운드 구석구석을 누볐다. 이날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황의조는 비록 공격 포인트 사상에는 실패했으나 수차례 인상적인 몸놀림을 선보였다.

그러나 닥스스포츠 등 일본 현지매체를 통해 황의조가 경기를 마친 뒤 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선수와 볼 경합을 하

다 발등을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정확한 몸 상태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부상 정도를 떠나 황의조가 다쳤다는 소식은 대표팀에 결코 답답지 않다. 더욱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부상은 향후 여정에 큰 영향을 끼칠 악재가 될 수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막을 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8강에 그친 대표팀은 2022카타르월드컵을 향한 긴 레이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 출발이 남미 강호들과의 3월 평가전 시리즈다. 대표팀은 22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자웅을 겨룬 뒤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콜롬비아와 격돌한다. 공교롭게도 일본과 날짜만 달

리할 뿐 같은 상대들과 연이어 마주칠 예정이라 팬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파울루 벤투 감독(50·포르투갈)에게 황의조는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새로운 공격 옵션과 전력을 살릴 기회가 될 수 있으나 황의조는 골키퍼를 포함한 전 포지션에 걸친 빌드업과 점유를 강조해온 벤투 감독의 축구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축구 입장에서 핵심 골잡이의 때 아닌 이탈은 반가를 리가 없다. 황의조의 부상 상황을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휴가차 유럽에 머물고 있지만 김영민, 최태욱 코치가 한중일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